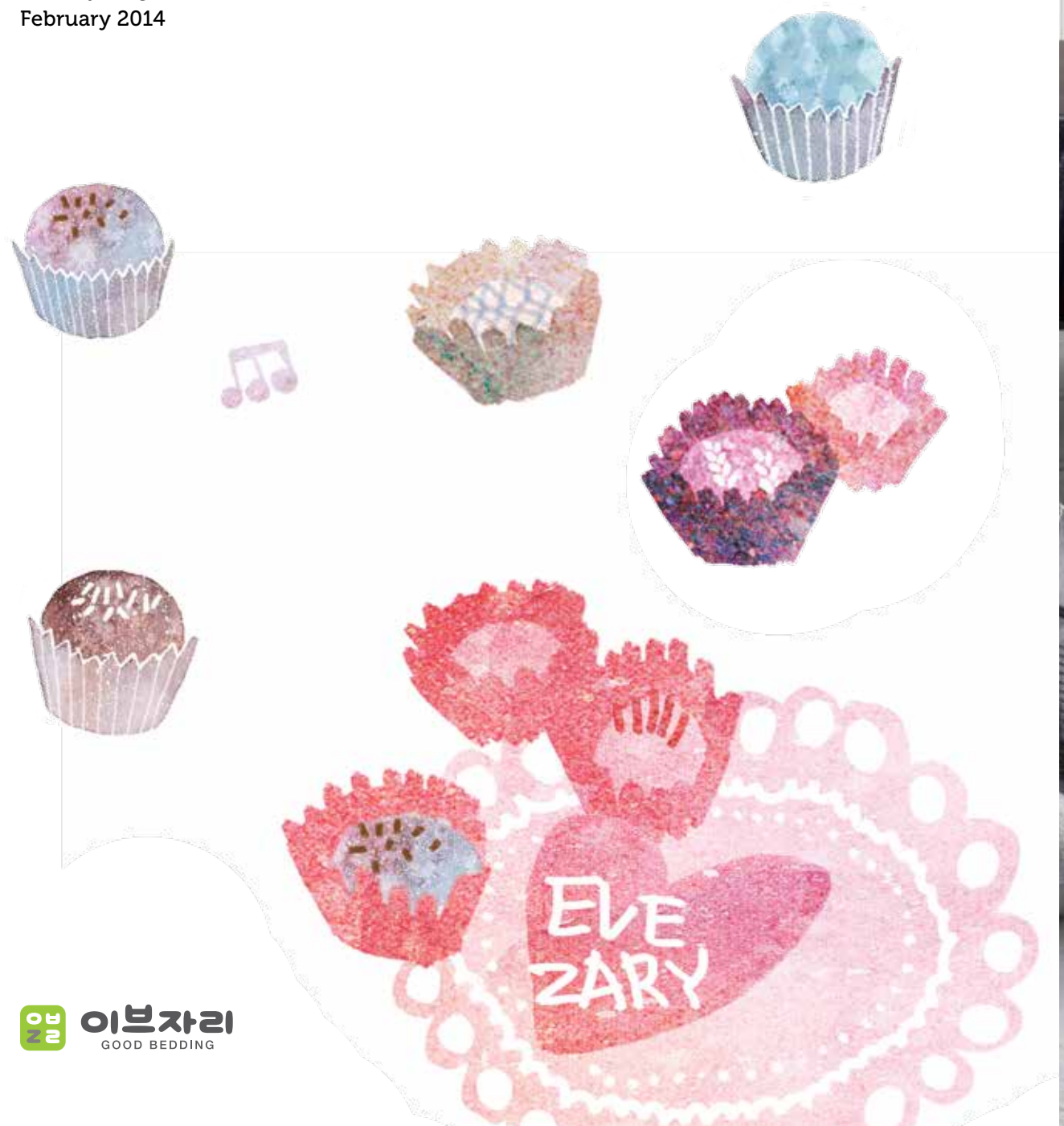


# GOOD

morning  
good bedding

evezary magazine  
February 2014

vol.92



# Good Morning, Good Bedding

evezary magazine February 2014 vol.92

02

Main Issue  
이브자리 중무식·시무식  
이브자리x이노 런칭 5주년  
기념 이벤트

08

Social Issue  
녹색성장 유공기업  
산림청장 표창 수상

10

Style  
2월 추천 상품

13

New Open  
이브자리코디센 리뉴얼  
대구진천점

14

Atrian  
2014 인테리어  
트렌드로 제안하는  
ATRIAN Bedding Room

16

On Air  
이브자리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신규 드라마

20

People  
달콤한 멜로디로  
서로의 하루를 열다  
영업기획팀 김민경 사원 &  
서울영업7팀 김명수 주임

22

Interview  
안되면 '배개로' 되게 하라!  
이브자리 코디센 수면센터점  
설세권 점장

24

Together  
깊이가 다른 달콤함,  
수제 초콜릿 체험  
이정인 디자이너

28

Talk  
말 한마디에서 시작하는  
대인관계의 중요성

29

Interior  
일상의 공간에  
특별한 감각을 더하다

34

Health  
그 겨울,  
산이 내게로 왔다

38

Recipe  
어른과 아이,  
누구나 먹기 좋은  
가지 모짜렐라 말이

40

Culture  
질리지 않는 사랑 영화

44

Gallery  
김은옥 초대전 —  
더 프레셔스 메세지

46

Goods  
잠 못 이루는 그대,  
쉽게 잠들 수 있기를

47

Keyword  
겨울철  
가족 건강지킴이

48

Emotion  
직장인의 수면 습관  
관리 비법

발행일 2014년 1월 28일 발행 (동권 제92호 2월호)  
발행처 (주)이브자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49-7(휘경동)  
발행인 고춘홍  
담당자 마케팅본부 이정인(02-6490-3206)  
제작진행 마인드,마인드(02-308-0082)  
기획 및 편집 김유석  
디자인 김민정, 서미선  
표지 일러스트 김소라  
사진 최용(studio YH)  
인쇄 예인미술



찬바람이 불어도 따스한 온기가 있으면 버틸 만 하다.

긴 불황과 한겨울 추위가 매섭다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기에 우리네 삶도

훈훈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2월은 설 명절과 발렌타인 데이, 졸업, 입학 등으로

바쁜 달이다. 가족의 정, 친구 간의 우애, 연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악보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그 특별하고

달콤한 순간들을 만끽해 보자.

Sweet Melody In My Life

2014 S/S 신상품 미니멀스킨  
튀지 않는 은은한 럭셔리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남녀, 중장년층  
모두가 선호하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상품이다.  
혼수 고객을 위해 맞춤 없이 K사이즈가 출시되는 상품으로,  
스와로브스키 정품 로고 포인트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했다.



축 제 처 럼  
뜨 겁 고  
시 작 처 럼  
설 레 다

이브자리 종무식·시무식

이브자리인들의 열정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이 지난 12월 31일 서울 왕십리에 위치한 CGV에서 있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다짐을 담은 시무식까지 이어진 그 뜨겁고 생생했던 현장! 열정과 설렘으로 모두를 하나 되게 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다 함께 Go Go~!

2013.12.31

종 무 식

이브자리 종무식은 축제의 장이다. 한 해 동안의 성과와 이슈들을 한자리에서 다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올해 역시 이브자리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눈부신 혁신의 성과들이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또한 신입사원들과 부서별 장기자랑 순서는 종무식에 함께 한 모든 이브자리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2  
R&D factory  
생산지지의 첨단화 R&D 팩토리 신축



5  
grand prize  
삼우당 섬유패션 침장부분 대상 수상



8  
good sleep lab  
이브자리 블로그 '좋은 잠 연구소' 오픈



3  
design authentication business  
대한민국 디자인 경영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21,900,000,000

6  
sale  
백화점 매출 입지구축



9  
forest carbon offset  
기업 최초 사회공헌형 산림 탄소 상쇄 기업으로 선정



1  
premium sleep center  
미래 핵심동력 PSC 브랜드 출범



4  
green star ★★★★★★  
그린스타 인증 7년 연속 획득



7  
best taxpayer  
2013년 납세자의 날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



10  
overseas study  
창업사원 해외연수 진행



종무식의 하이라이트!  
모두가 기다리던 장기자랑 순서.  
2013년 새롭게 이브자리에 입사한  
37-1기, 2기, 3기 창업사원들과  
인천생산본부, 고객상담실,  
점포활성화팀 등의 화려한 무대가  
모두의 눈을 즐겁게 했다.  
1등, 2등, 3등, 특별상의 푸짐한  
포상금 덕에 뒤풀이 희식이 매우  
즐거웠다는 후문이다.



1등  
인천생산본부



2등  
37-1기 창업사원



3등  
37-2기 & 주원경 대리, 이형근 주임



3등  
고객상담실



특별상  
37-3기



특별상  
점포활성화팀



청마의 새해가 밝았다. 회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다 함께 새해의  
다짐을 외치며 한마음이 되어 같은  
방향을 향해 힘차게 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청마의 힘찬  
발걸음처럼! 또한, 시무식에서는  
청마해를 기념하며, 회장님,  
임원분들과 함께 회사의 말띠  
사원들이 대표로 시루떡 커팅과  
화이팅을 외쳤다. 아, 참여했던 모든  
이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뜨거움이  
남아 있으리. 🍬





런칭 5주년 기념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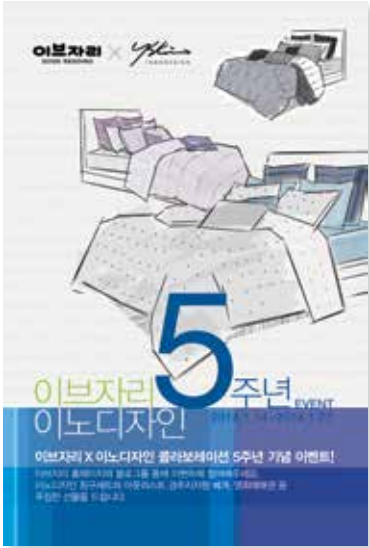
이중 간의 브랜드를 엮는 콜라보레이션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된 콜라보레이션은 평범했던 제품에 스타일과 감성을 더한  
차별화 요소로 소비자의 지갑을 유혹한다. 침구 업계도 예외는 아닌데 그 중 이브자리의  
행보가 단연 눈길을 끈다. 이브자리는 2009년 김영세 디자이너와 손을 잡고  
전통적인 감각과 현대적 디자인이 어우러진 브랜드 ‘이노’를 론칭했다.

5

지난 1월, 스타디자이너 김영세가  
이끄는 이노디자인과 이브자리가  
함께 협업하여 만든 홈 컬렉션  
브랜드 이노의 론칭 5주년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브자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들에게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한  
것은 물론, 2014년 S/S 이노 신상품의  
홍보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

우선 첫 번째로 2014 S/S 이노  
신상품의 디자인 투표 이벤트가  
진행 되었다. 배너광고와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이노 신상품을  
요모조모 살펴보고 가장 맘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이벤트에  
응모된다. 이를 통해 이노 신상품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었다.  
두 번째로, 이번 이벤트를 자신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하면 영화  
예매표를 선물로 주었다.

이 같은 온라인 소문내기를 통해  
젊은 층의 참여율도 높였으며 간단한  
참여 방법으로 이번 이벤트에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온라인상의 이벤트와 함께 전국  
대리점에 포스터를 배포해 오프라인  
고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2014 S/S  
이노디자인×이브자리 신상품을  
만나보자. 📺



evezary  
×  
INNODESIGN  
2014 S/S



**이노-미니멀스킨**  
튀지 않는 은은한 럭셔리를 추구하는 상품으로  
남녀, 중장년층 모두가 선호하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상품. 혼수 고객을 위해  
맞춤 없이 K사이즈가 출시되는 상품으로,  
스와로브스키 정품 로고 포인트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했다.



**이노-라인업**  
굳어지기 없는 심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스트라이프와 단조로운 코드 패턴의 모던함이  
젊은 감성을 잘 표현해준다. 이불 앞 뒷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골라 덮는 재미가 있다. 꽃 패턴을  
거부하는 싱글 족들과 혼수고객에게 안정 맞춤인  
상품이다.



**이노-다이안픽셀**  
10대의 학생층부터 2030대의 캐주얼 감성  
고객들에게 추천할만한 상품. 특히 어머님들의  
아들 방 꾸미기를 원할 때 좋다. 중성적인  
패턴감은 남녀 구분 없이 호감을 준다. 특히 남자  
고객들의 호응이 높은 상품. 일반적인 인테리어에  
모두 무난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스마트한  
상품이다.



**이노-시티파이**  
감각적인 패턴감으로 젊은 감성을 지향한다.  
그레이톤의 모던함과 블루톤의 배색이 심플한  
인테리어 구조에 매우 잘 어울리며, 싱글족과  
10대의 학생층에게도 어필하기 좋은 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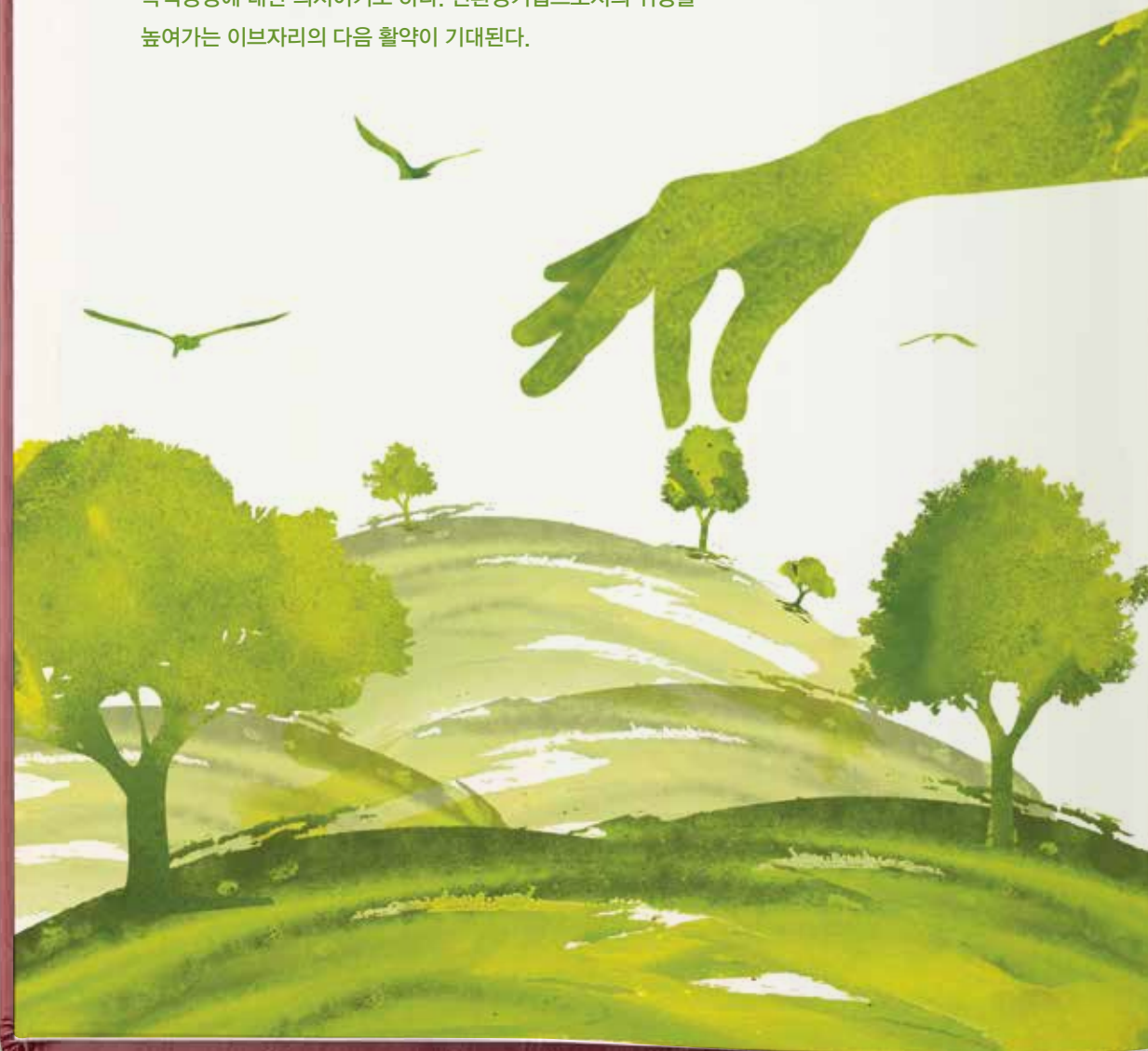


**이노-어프라이즈**  
실의 올 풀림을 스트라이프로 표현한 감각적인  
상품. 특히 남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며,  
싱글족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다.  
SS사이즈와 Q사이즈 모두 다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고 혼수 고객의 세컨드 침구로 권할 수 있는  
상품이다.

## 침구업계 최초 ‘녹색성장 유공기업’표창 수상

### 녹색성장 유공기업 산림청장 표창 수상


이브자리의 심볼에는 부드럽고 밝은 그린 컬러가 쓰였다.  
편안하고 포근한 잠자리이자 건강하고 신선한 삶의 터전을 표현한 것이다.  
좁게는 개인의 침구에서 넓게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녹색경영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다.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는 이브자리의 다음 활약이 기대된다.



침구 전문 기업 (주)이브자리(대표 고춘홍)가 30일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3 녹색성장 유공자 시상식’에서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2013  
녹색성장 유공자 시상식’은 산림청 녹색사업단 산하 산림탄소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을 발굴, 포상하는 행사다.

이브자리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산림청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녹색성장 유공 기관 및 단체를 추천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브자리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친환경 조성’이라는 취지 하에 지난  
1987년 CSR브랜드 (주)이브랜드를 설립하고 다양한 친환경 운동 및  
산림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매년 전 임직원들이 식수활동을 하고,  
산림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해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업계 최초로 태양광 발전, 지열이용 환기 시스템 등 친환경  
건축 기술을 도입한 인천 코디센 간석점을 건립하여 환경배려형 경영으로  
주목 받는 등 탄소상쇄사업과 자연 친화적인 기업문화 형성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브자리 신용준 부사장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행하는 등 친환경 녹색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침실과  
건강한 생활창조를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건강한  
수면을 위한 친환경 이브자리 제품으로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하고  
달콤한  
순간들을 함께할  
이달의  
추천 상품

에코빌

소재 : 40수 콤팩트면모달  
색상 : 그레이

봄 분위기에 안성맞춤인 그린컬러와 내추럴한 나뭇잎이 자연에서 맛볼 수 있는 후레쉬함으로 힐링되는 기분을 연출하며, 면모달의 부드러운 감촉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혼수 고객과 봄단장 새집 구조에 매우 잘 어울리며, K사이즈를 맞춤없이 진행한다. 혼수층 외에도 10대 남, 녀 학생층부터 40~50대의 힐링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한 가장 대중적인 제품으로 매장 연출 또한 봄 분위기로 업 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 적극 추천 상품이다.

에코빌 K, Q세트 구매시  
출결 코디베개커버 2장 증정



미니멀스킨

소재 : 면 60수 사틴  
색상 : 그레이

튀지않는 럭셔리함이 모든 사람들로 부담감을 줄여 품평 점수가 가장 높을만큼 2014년도를 대표하는 히트상품이다. 특히 남,녀 고객 모두 선호할 수 있으며, 혼수 고객들과 중,장년층 모두 좋아하는 상품으로 판매 성공률이 매우 높은 제품이며, 혼수 고객을 위한 K사이즈를 맞춤없이 진행합니다. 고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매장의 디스플레이 하기 좋은 상품으로 삼쿠커와 장식쿠커가 준비되어 있으며, 스와로브스키 정품 로고가 포인트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한 제품입니다.

미니멀스킨 K, Q세트 구매시  
출결 코디베개커버 2장 증정







### 바니스

소재 : 면 60수 사틴  
색상 : 블루, 핑크

내추럴감성의 자연의 모티브가 부드러운 감성의 플라워로 표현된 제품이다. 파스텔 컬러 위의 화이트 플라워가 순수하고 서정적인 정서를 전달한다. 화이트 잔꽃 코디로 깨끗한 봄의 느낌을 전달하며, 로맨틱한 핑크컬러와 이국적인 감각의 블루컬러 두가지를 진행하여 취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 섬세한 레이스를 디자인 포인트로 사용하였으며, 세탁시에는 뒤집어서 지퍼를 채운후 세탁한다.

바니스 K, Q세트 구매시  
출결 코디베개커버 2장 증정



### 이브자리 CODISEN



#### 이브자리코디센 리뉴얼 대구진천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4  
tel. 053-646-5770

새로 지은 건물에 내추럴한 느낌, 천고가 높아 탁트인 개방감을 주고, 인근 매장보다 화사해 고객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브자리코디센 대구진천점은, 기존의 2층 매장을 리뉴얼하여 이브자리 아울렛과 커튼, 블라인드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1층과 더불어 매출 상승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점포이다.





2014 인테리어 트렌드로 제안하는

ATRIAN Bedding Room

본 인테리어 트렌드정보는 '한화L&C 트렌드 기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Purifier



혼돈과 급변하는 현대 사회로부터 탈피하고 소유와 욕망을 극복하는 순수한 명상에 관한 테마, 물질적인 제약을 벗어나, 보다 시적인 가벼움과 무형의 쉼을 가질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에 재질의 촉감이 중요해지고, 반투명 혹은 투명 컬러로 몽환적이고 베일에 쌓인듯한 표현이 핵심 요소이다. 여기에 강조되는 소재는 바로 반투명 재질이다. 제품, 인테리어 패션 모든 분야에서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할수 있는 새로운 소재라고 할 수 있으며 소유와 욕망에 대한 반발과 자극이 난무하는 세상을 뒤로 하려는 움직임을 담아, 꾸밈없이 차분한 순백색의 뉴트럴 컬러(Neutral Color)로 표현한다.

**월 데코 효과가 있는 타공판 헤드보드**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놓을때 타공판을 활용하면 수납과 데코 기능을 겸비한 아이디어 헤드포드로 맛있는 벽면 연출이 가능하다.

**미란다**  
은은한 민트 그린 컬러가 편안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친환경 소재인 모달과의 혼방섬유로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원목과 화이트 침대에 매치될 경우, 아늑한 침실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2014 S/S Kiss&Hug 제품

**옷걸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원목소재의 옷걸이로 러그나 가벼운 타피를 걸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수 있다. 머시타시 제품

**스탠드**  
은은한 페일톤의 컬러와 반투명의 재질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와 매치하면 차분하면서 몽환적인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머시타시 제품



Traveler



영속적인 것에 대한 실험과 미지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시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탐구가 핵심 요소이다. 넘치는 풍요속에서 결핍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고 있는 시점, 우리는 곧 잘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꿈꾸곤 한다. 풍족하진 않지만 풍요로웠던 시대로의 귀환에 관한 테마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미래적인 디자인들은,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근본으로 다시 한번 정제되어, 컨템포러리(Contemporary)한 업데이트를 거치게 된다. 주요 소재인 빛바랜 청동과 골드는 영속성을 표현하며 가죽, 대리석, 우드등 다양한 재료와 결합되어 실험정신을 더한 엔틱함을 담아낸다.



**수납장**  
금속의 아름다움을 입힌 사이드 보드로 기존의 금속의 차가운 속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승화시켰다. 금속특유의 세련된 반광택과 우드 텍스처가 온기있는 엔틱함을 더한다.

**테이블 의자**  
가죽과 오크톤의 원목이 매치되어 모던하면서도 엔틱한 느낌을 세련된 분위기로 변화시켰다. Rough Luxe 제품



**가죽을 재해석한 디자인 헤드보드**  
프레임이 넓은 침대라 하더라도 낮은 헤드보드를 세우면 세련되면서도 무겁지 않은 스타일로 침실을 엔틱하게 꾸밀수 있다.

**제이크**  
빈티지한 감성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섬세한 체크패턴과 그레이쉬한 블루 컬러의 매치가 감각적으로 돋보이는 제품이다. 2014 S/S 헤이마 제품



Curator

현대인에게, 놀이를 통한 현실 속의 작은 일탈을 제안한다.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도 디자인이 될수 있다는 점을 예시하고 모든 이에게 환영 받을 만한 범용의 디자인은 이제 지루함이 느껴진다. 때론 가구 본연의 용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것을 제안한다. 맛있는 일상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채도 높은 컬러를 추구하며, 가공되었지만아직 더 가공할 여지가 남아있는 듯, 가볍고 가공되지 않은 느낌의 원목을 제안한다.



Curator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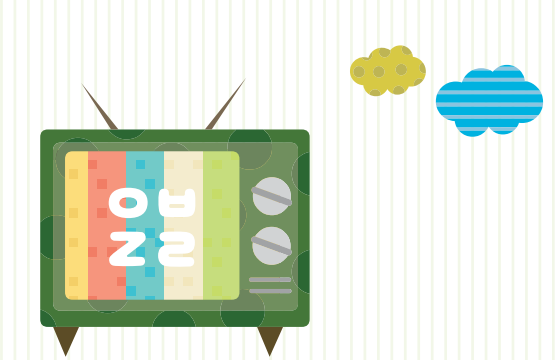
**모던함으로 재해석한 모빌**  
자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듯한 지끈을 돌돌 말아 만든 모빌이 심심한 침실에 소소한 재미의 요소를 더할수 있다.

**가인**  
단아한 꽃자수와 기하학적인 패턴이 브라이튼의 핑크컬러와 매치되어 고루한 옛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느낌의 침실을 제안한다. 미단 2014 S/S 제품



**러그 & 쇼파**  
실이 교차되는 방식에 따라 마법처럼 패턴이 만들어지는 니트조직과 브라이트 컬러를 믹스함으로 맛있는 인테리어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파트리시아 제품





## 이브자리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신규 드라마

새해와 함께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드라마들속에도 이브자리의 친구는 함께할  
예정이다.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KBS의<감격시대>부터 KBS일일드라마<천상여자>, 그리고  
20,30여성들이 열혈 시청자인 tvN<로맨스가 필요해>까지..  
이제 막 시작된 따끈따끈한 신작들을 미리미리 살펴보자.



매주 수,목 오후 10시 방송  
주연 : 김현중, 임수향, 진세연, 조동력, 김성오

KBS

1930년대 중국 상하이 및 국내를 배경으로 한,중,일  
낭만주먹들이 펼쳐내는 사랑과 의리, 우정의 판타지를 그린  
거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액션의 감성 로맨틱 느와르 드라마.



매주 월~금 저녁 7시 50분 방송  
주연 : 윤소이, 박정철, 문보령, 권율

KBS

언니의 복수를 위해, 말괄량이 건습 수녀에서 아누스적인  
악녀로 변신하는 여자와 그녀를 향한 지독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철부지 재벌 3세에서 가슴 뜨거운 사랑의 성자로  
 거듭나는 남자의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인생 + 러브스토리!



매주 월,화 오후 9시 40분 방송  
주연 : 김소연, 성준, 남궁민, 왕지원, 박효주

tvN

연애와 일, 사랑과 성공. 두가지 모두를 쟁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30대 여자들의 진짜 로맨스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

협찬 상품



**디센트**  
면 60수 사틴 소재에 일반적인  
폴리솜이 아닌 천연 양모솜을 사용한  
고급 상품으로, 블루진과 베이지톤의  
볼드한 체크무늬가 세련되게 표현되어,  
캐주얼감성을 지향하는 성인들과  
10대의 학생들까지 선호하는 디자인.



**카페라**  
고급친환경 소재인 모달이집트면을  
사용하였으며, 쉬크하고 감각적인  
도트 포인트에 럭셔리한 실크 핑크빛의  
스와로브스키를 부착하여,  
이브자리 프리미엄 라인 SIF만의  
차별화를 둔 상품.



**코코마인**  
화이트의 깨끗한 이미지가 호텔식  
베딩을 연상케하며, 단조로움을  
보완하기 위한 도트 포인트는 꽃 패턴을  
싫어하는 싱글족들과 혼수 고객에게  
어필할수 있는 상품.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는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  
신혼방에도 안정맞춤인 상품.



**홈니트**  
플라워의 화사함을 연출한 디자인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품. 꽃 문양에 맞춰 손누비  
처리가 되어있어서 부드러운 촉감과  
뽀송뽀송함을 함께 느낄수 있다.  
퀵사이즈는 물론, 싱글 사이즈  
여학생들에게도 추천하기 좋은 상품.



**팬지플로라**  
잔꽃 패턴과 블루컬러의 매치로  
기존 플라워 패턴에서 벗어난 트렌디한  
감성으로 디자인된 상품. 베개커버와  
이불커버 3면에 섬세한 토손레이스를  
달아 디테일을 강조하였다. 유러피안  
프로방스 스타일의 가구나 내추럴한  
원목가구와 잘 어울리는 상품.



**퍼블리크**  
새로운 감각의 수채화 기법의 네이비  
체크패턴과 핸드드로잉 느낌이  
유니크하면서도 내추럴한 느낌을 주는  
상품. 실크처럼 부드러운 터치감의  
모달과 탁월한 수분조절 능력의 텐셀이  
혼방된 프로모달소재로 쾌적한 침실  
환경을 도와주는 상품.



**퓨어리스**  
소프트한 블루컬러와 푹터치가  
자연스럽게 표현된 내추럴스타일  
상품. 침구 온도를 32도에서 34도로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아웃라스트를 충전재로 하여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수 있는 상품



**헤르츠**  
자연의 느낌을 부드러운 라인으로  
표현한 디자인. 부드러운 핑크와  
브라운컬러가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화이트라인으로  
표현된 식물 패턴은 생동감을 전해준다.  
텐셀수피마면을 사용하여 매우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다.





2월의 칭찬 주인공  
영업기획팀 김민경 사원, 서울영업7팀 김명수 주임

## 달콤한 멜로디로 서로의 하루를 열다

사내연애만큼 달콤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사랑이 또 있을까. 사내커플에서 시작해 결혼까지 성공했다면 용기와 현명함을 모두 갖추었다고 봐야 마땅하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들은 서로를 '하루'라고 부른다. 하루는 일본어로 하루(春), 즉 봄이라는 뜻이다. 봄은 사계절 중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며,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우리 말로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더 사랑하라는 뜻으로 이어지니 이보다 속 깊은 애칭도 없을 것이다.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려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명수(이하 명)** 서로 다른 팀이었기 때문에 첫인사를 하게 된 게 입사 후 3, 4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이라 어딘지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죠. 그 후로 마주칠 때면 호기심과 반가움으로 눈웃음만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서로 업무가 변경 되면서 드디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브자리코디센 대리점 담당자와 이브자리코디센 영업지원의 담당자로서 매일같이 인사를 나누고 업무상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김민경(이하 민)** 야근이 있는 날이나 주말 근무 때면 식사를 함께 할 기회가 많았어요. 즐겨 듣는 노래 취향도 비슷했는데 제이레빗 같은 인디음악이 상대방 스피커에서 나오면 은근히 반가웠습니다. 일하다 힘들 때면 함께 음악감상을 하며 휴식을 갖기도 했죠. 업무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근무가 힘들 때도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희가 연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사내 커플이다 보니 더 좋은 점도 있었고 그 반대인 점도 있었을 텐데요.

**명** 서로의 업무나 시간적인 면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상대방의 업무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업무 특성상 바쁜 일이 있을 때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만큼 사소한 거짓말도 할 수 없다는 점은 자칫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할 때 보안 유지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입니다. 커플 사이를 공개한 후에도 서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 내에서 말과 행동에 무척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결혼까지 결심할 수 있었던 상대의 매력을 꼽자면 무엇일까요?**

**명** 처음 봤을 때부터 아내에게 호감을 가졌지만 신입사원이라 다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에 점점 더 호감이 깊어갔습니다. 업무상으로나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느꼈고, 연애를 할 때도 상대를 배려해 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민** 남편을 봤을 때 업무적으로 성실하고 강한 모습이 남자다웠습니다. 그런데 회사 밖에서 첫 데이트를 했을 때는 그런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7번방의 선물’이었는데 저보다 더 감성적인 모습에서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남자의 마음 속 깊이 숨겨진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자상하고 배려심 많고 부드러운 태도에 점점 더 호감이 갔습니다.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민** 몇 년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던 터라 연애 시작한 후로 신랑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술비치인데요. 9월 24일 생일 무렵 축하이벤트 겸 술비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동해바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신랑이 밤바람이 차다고 담요를 덮어주더니 청혼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폭죽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업무 능력에 대한 칭찬을 부탁 드립니다.**

**명** 아내는 대표님을 수행하는 비서로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은 물론, 대표님의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대표님의 대답 한번, 문자 하나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 어쩌다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시장하지는 않으실지,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많이 편찮으신 것은 아닌지, 빨리 완쾌되셔야 한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에 제가 다 질투를 느낄 정도로 진심을 다해 위사람을 모시는 스타일입니다. 유학 경험으로 일본어 능력이 상당히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업무에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고 스스로 무척 즐긴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민** 남편은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지닌 성실한 사람입니다. 대리점 한곳 한곳 놓치지 않고 한번이라도 더 방문하려 노력하곤 합니다. 바쁠 때면 식사도 못할 정도로 걱정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집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다 보니 대리점 사장님들과의 업무 조율에 매진하느라 결혼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섭섭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늘 침착하게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만큼 대리점 사장님들도 남편과 저의 하나됨을 격려하고 축하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장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안되면 ‘베개로’ 되게 하라!

이브자리 코디센 수면센터점  
설세권 점장

흔히 ‘베개를 높이 베다’라는 표현이 있다. 근심거리가 없어져 마음 편안히 폭 자거나 태평스럽게 지냄을 비유한 말이다. 한편으로는 ‘고침단명(高枕短命)’이란 사자성어도 있다.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수명이 준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삼천 년을 살았다는 전설의 인물 동방삭은 종이 석장을 베고 잤다고 한다. 반면 현대의학에서는 너무 낮은 베개는 건강을 해친다고 한다. 높아도 안되고 낮아도 안 된다니! 베개, 그것 참 까다롭기 그지 없다.



**Q. 이브자리 코디센 수면센터점은 국내 최초의 맞춤베개 전문매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A.** 이브자리는 ‘건강한 잠’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2003년도에 수면환경연구소를 설립 후 쾌적하고 편안한 수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수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고, 그 일환으로 최고의 수면환경으로 체험컨설팅을 제안하는 수면체험관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본 매장에서는 수면컨설팅과 직접 체험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각기 다른 개인에 딱 맞는 맞춤형 상품과 맞춤 제작 상품을 제공합니다.

**Q. 설세권 점장님의 경우 특전사 출신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면과 침구라는 새로운 분야에 몸담게 되어 다소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A.** 개인적으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러닝, 웨이트, 테니스 등 운동을 즐겨 했고 도전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특전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점은 회사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수면과 건강은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보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에도 강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내 문화가 워낙 건강을 중시하다 보니 회사와의 접점을 찾기에 더 수월했죠. 모든 사원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 싱글을 달성하며 사내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전사 정신에 ‘안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목표에 대한 도전과 끝없는 노력이라는 면에서 특전사 정신과 회사생활은 닮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점장님 외에 수면센터점에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김수현 주임님에 대한 자랑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지점의 특성상 근무인력은 상품적인 내용 외에도 수면 관련 지식과 무엇보다 고객 지향적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 역량이 필요한데요. 김 주임님은 그런 기준에 아주 적합한 인재입니다. 슬립코디 2급 자격 소지자로, 리테일 유니버시티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브자리 교육팀에서 3년 6개월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수면센터점에는 상당히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갖춰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본 점에는 숙면분야에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요소들이 그야말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상품 면에서는 베개 전문매장답게 다양한 베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목베개, 허리베개, 다리베개, 발가락베개, 눈베개 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야말로 전신과 관련된 베개 제품들이 있습니다. 서비스적인 측면에는 체험과 컨설팅을 꼽고 싶은데요. 특히 경추 측정장비(경추호의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와 수면 자세를 촬영하여 이상적인 각도를 확인하는 장비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통해 고객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과 상품을 제안하게 됩니다.

**Q. 수면센터점을 운영하고 여러 고객을 응대하면서 느꼈던 바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A.** 사실 여기까지 찾아오실 정도의 고객이면 보통 분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어지간한 제품들은 다 접해보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도 높은 편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었을 만큼 숙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 일인데 오전에 상담을 시작해서 점심 시간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까지 상담을 진행하셨던 고객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보니 상담 한번에 5시간이 걸린 셈이었죠. 그렇게 까다로운 고객을 앞에서 저는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지금의 이 고객을 만족시켜드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불편함을 가진 사람도 만족시켜드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마음가짐으로 임합니다. 그냥 단순한 상품만을 판매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이 절실하신 고객님들께 그분에게 딱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숙면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Q. 긴 시간 인터뷰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베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A.** (한참 고민 끝에) 베개는 애인이다. 하루 8시간 항상 붙어 있고, 곁에 있는 그 어떤 존재 보다 소중하고 편안하니까! 



## 깊이가 다른 달콤함, 수제 초콜릿 체험

발렌타인 데이가 다가온다. 발렌타인 데이를 앞둔 연인이라면 싫든 좋든 초콜릿 문제로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초콜릿으로 증명하긴 어렵지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그만한 게 없을지 모른다. 뻔한 상술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 달콤한 유혹이다.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 초콜릿에 들어 있는 페닐에틸아민 성분은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되는데, 실연을 당했을 때는 생성이 중단된다고 한다. 이렇듯 초콜릿이 현실적인 사랑의 묘약이라면 기왕 선물하는 김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세상에 하나뿐인 초콜릿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장제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20%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설탕, 합성감미료, 식물성 유지, 유화제, 각종 첨가물 등으로 채워진다. 그에 비해 수제 초콜릿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카카오 함량도 높다. 무엇보다 맛의 차이가 확연하다. 비록 만드는 품은 많이 들지만 정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수제 초콜릿 공방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 배우는 문턱도 낮아졌다. 이정인 디자이너의 경우 어느 정도는 초콜릿 애호가라 불릴만했다. 친연니가 해외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이었는데 그때마다 여행지나 면세점에서 사다 준 세계 각국의 초콜릿을 음미하며 미각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과거의 연애 시절을 돌이켜 보면 미식이었던 남자 친구를 위해 백화점에서 고급 초콜릿을 샀던 기억도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제 초콜릿 수업을 받아본 경험은 전무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본 체험에 임하게 되었다.



### 이 달의 체험 아이템

파베초콜릿(Pavé Chocolate), 밀크로쉐(Milk Rocher)

흔히 생초콜릿이라고도 불리는 파베초콜릿의 파베(Pavé)는 프랑스어로 포석(鋪石; 길을 포장할 때 쓰는 석재)을 뜻한다. 밀크로쉐의 로쉐(Rocher) 역시 프랑스어로 바위라는 의미. 둘 다 그 모양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파베초콜릿은 만드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다.



파베초콜릿(Pavé Chocolate)

(재료) 다크 초콜릿 적당량, 생크림 적당량



1 다크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여준다. 초콜릿의 녹는 점은 체온과 비슷한 정도라서 직화로 가열할 경우 타버릴 수 있다



2 생크림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1과 섞을 때 생크림이 차가우면 따로 놀기 때문에 둘의 온도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춘다



3 1과 2를 잘 섞어주고 틀에 부어준다. 이 상태를 가나슈 (초콜릿과 생크림을 섞어 만든 소스)라고 한다.



4 3이 굳으면 한 입 크기로 잘라 카카오 파우더를 묻혀 마무리한다. 상온에서라면 12~24시간 정도 굳혀준다. 냉장고를 이용하면 훨씬 빨리 굳지만 맛은 전자 쪽이 더 부드럽고 풍미가 있다.

밀크로쉐(Milk Rocher)

(재료) 다크 초콜릿 적당량, 생크림 적당량



1 구운 슬라이스 아몬드를 손으로 부숴준다. 크기는 너무 작지 않은 정도로.



2 템퍼링(tempering: 온도조절)한 밀크 초콜릿에 1을 넣고 잘 섞어 준다. 템퍼링은 초콜릿을 녹이고 식히는 작업인데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섬세한 손길이 요구된다. 온도를 사용하거나 아랫입술에 대보면서 적정 온도를 맞춰야 한다.



3 수저나 포크로 한입 크기만큼 덜어서 쟁반에 쌓는다.



4 화이트초콜릿으로 장식하여 마무리한다.



“정말 맛있다.  
갓 만들어진 수제초콜릿의 맛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가 있고 신선하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내리는  
식감도 최고였다. 이번에 직접  
체험해보면서 수제 초콜릿과  
일반 초콜릿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템퍼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껴봤다.  
수제 초콜릿이 왜 일반 초콜릿보다  
부드럽고 맛있는지 그 원리를  
알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이었다.”

— 이정인 디자이너



Renet's Chocolate  
박연정 CEO

르네초콜릿은 쇼콜라티에가 직접 진행하는 초콜릿수업, 초콜릿 주문 제작과 함께 수제초콜릿 문화의 진수를 즐길 수 있는 공방 겸 카페이다. 박연정 CEO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각지의 레시피를 전수하고, 한국적인 응용까지 습득하여 실질적인 창업이나 취업, 제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쇼콜라티에 양성 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다.

- 2012.1 現 르네초콜릿 대표
- 2011.6~12 서초구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문화대학 전임강사
- 2011.2 강남구 대치동 문화통상 강의
- 2010.9~12 서초구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문화대학강의
- 2010.7 독일 뮌헨 The international school of Decor and confectionery Art 수료
- 2010.7 영국 런던 Rococo Chocolate에서 Intensive course수료 (수상) 제4회 한국 쇼콜라티에 경연대회 아트부문 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78번지 L동 1-4호 르네초콜릿 (02-544-2085)





{

말 한마디에서 시작하는 대인관계의 중요성

}

대인관계가 술술 풀리는, 마법의 그 한마디

<div>대인관계의 중요성</div> <div>1. 업무상이든 혹은 순수 친목의 선상이든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로 인해 직장생활이 훨씬 편해지거나 그 반대가 된다. 설문조사에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꼽을 때면 항상 1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대인관계가 바로 말 한마디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div>	<div>대인관계의 중요한 두 법칙</div> <div>2. 대인관계가 술술 풀리는 마법의 한마디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단언컨대~’ 마법의 한마디가 모든 대인관계를 술술 풀리게 할 수는 없다. 대신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이 있다.</div>	<div>‘첫인상 5초의 법칙’과 ‘콘크리트의 법칙’</div> <div>3. ‘첫인상 5초의 법칙’은 사람들간에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평가하는 순간은 바로 5초안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첫인상은 ‘콘크리트의 법칙’에 의해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쇠망치로 부수어도 잘 바뀌지 않는 법칙을 말한다. 대인관계에 있어 첫인상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div>
<div>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들</div> <div>4. 일반적으로 첫인상은 '시각 55%, 청각 35%, 언어 7%, 기타 3%'의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시각적인 요소 55%와 말하는 억양 및 톤 등으로 이루어진 청각요소 35%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마법의 화술을 한다고 한들 그 비중은 7%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브자리에서 전개하는 하루에 3천번씩 웃는 'Smile 3000 운동'도 이와 관련이 깊다)</div>	<div>청각 35% + 언어 7%</div> <div>5. 청각 35%과 화법기술인 언어 7%가 연합해서 이루어내는 42%의 중요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스킬이다. 우선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라. 자신감에 차 있는 목소리인지, 음량이 작지는 않은지, 너무 콧소리를 내지는 않는지 등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확인하라.</div>	<div>도레미파솔라시도</div> <div>6. 그리고 나서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 노래에서 사용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한다. 너무 낮은 '도~미'정도라면 '파~솔'정도의 억양으로, 너무 높은 '시~도'의 억양의 소유자는 '라' 정도로 억양으로 조절한다.</div>
<div>관계를 여는 말</div> <div>7. 대인관계를 열어주고 관계를 깊게 하며 유지시키는 말들을 알아보자. 먼저, 관계를 여는 말은 '~는 어떠세요?'이다. 이는 상대를 모르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다.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해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의 관심사항에 대해 물어보는 것, 그것이 관계를 여는 한마디이다.</div>	<div>관계를 깊게 하는 말</div> <div>8. 다음은 맺어진 관계를 깊게 하는 말이다. 기대했던 관계가 이루어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분명 그 사람과 관계되어 발생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때, 놓치지 말고 해야 할 한마디가 바로 '당신 덕분입니다'이다. 단, 진실성 없이 남용하지는 말라.</div>	<div>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말</div> <div>9. 마지막으로 지속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한마디. '제가 더 기쁩니다.'이다. 이 말은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다시 상대방이 도리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마법 같은 한마디이다. 영미권 사람들은 잘 쓰는 It's my pleasure의 뜻이지만, 동양권 사람들은 흔히 쓰지 않는 말이라 더욱 매력적이다.</div>

# lifestyle

일상의 공간에 특별한 감각을 더하다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다.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하지만 너무 번거롭지는 않았으면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 가구 위치를 옮기거나, 침대 시트, 소파 커버 등 패브릭을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기는 하다. 다만 쉽고 편한 만큼 한계 역시 명확하다. 좀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한다면 결국 벽지에 손을 대야 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문제. 시공업자를 부르자니 비용이 크고, 직접 해보자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인트 벽지다. 벽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도배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고 시간도 절약 되어 초보자가 도전해볼 만하다. 스티커처럼 뜯어서 붙이는 방식도 있어 일반 벽지 시공에 비해 편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 벽지를 통해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라는 점이다.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일수록 포인트가 필요하다. 감각적이고 유머가 있는 아이디어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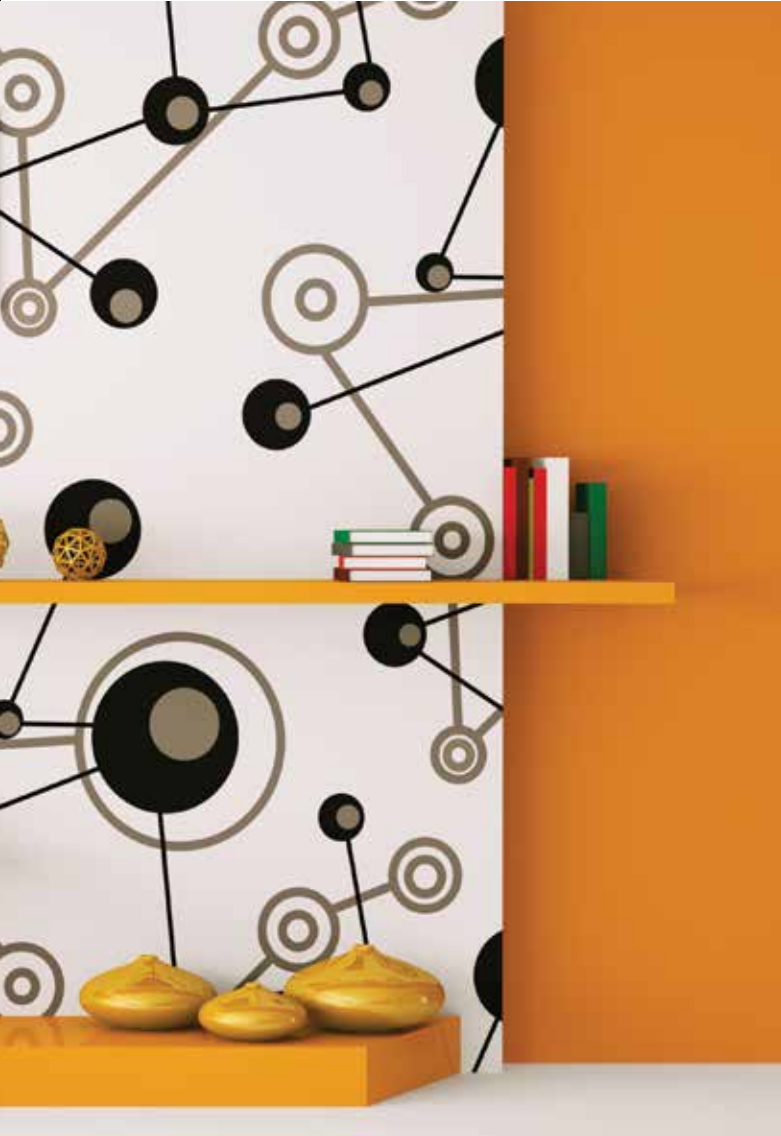
적절한 위치 선정

축구를 예로 들자면 훌륭한 공격수일수록 위치선정이 탁월하다. 포인트 벽지 역시 시공할 벽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올드한 느낌이 강해 변화를 주고 싶은 곳이나, 벽면에 얼룩이나 손때가 심한 곳이 우선 순위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면적대비 효과가 좋은 곳들도 시공에 적당하다. 거실 소파 뒤 벽면을 중심으로 주방식탁 옆, 현관과 마주 보이는 벽, 침대 옆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 본다.



패턴으로 경쾌한 분위기를

컬러가 아닌 경쾌한 패턴으로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려한 컬러보다 더 현란해 보일 만큼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지오메트릭 패턴으로 시공한 벽면은 강렬하고 색다른 인상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한쪽 면을 과감하게 스타일링했다면 다른 벽면은 되도록 심플한 컬러의 무지벽지가 위치해야 한다. 현란함을 차분하게 마무리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아예 패턴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주고 싶다면 잔잔한 격자 무늬 등을 쓰면 된다.



종류가 다양할수록 조화가 우선

포인트 벽지의 인기가 높은 만큼 업체에서는 여러 개성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화려한 컬러나 커다란 무늬는 기본이고, 사진을 이용하거나 그림을 그려 넣은 벽지 등 다양하다. 한 폭의 그림이 벽면 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뮤럴벽지도 강한 인상을 준다. 종류가 많다 보니 전체적인 조화에 신경 써야 자칫 촌스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이 방에는 꽃과 나무, 인형 등 동심을 반영할 수 있는 모양을, 거실이나 주방에는 체크 무늬나 원목 스타일, 식물 무늬 등 자연을 소재로 한 패턴을 권한다.





컬러는 쓰기 나름

일단 집안에 너무 많은 색상이 혼재하는 것은 피하자. 인테리어에 쓰이는 주조색은 3가지 정도로 제한을 두는 편이 산만함을 피할 수 있다. 벽지 역시 3가지 컬러 중 하나에 맞춰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색상을 골라본다. 같은 채도 내에서 선택한다면 무난하면서도 적당한 연출이 가능하다.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은 잘 질리지 않는 중간 채도의 중후한 컬러를 추천한다. 주방에는 눈에 띄는 화사한 느낌과 밝은 색상의 벽지가 좋다. 좀 더 확실한 포인트가 필요하다면 컬러감이 강한 벽지를 고르면 된다. 침실 등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에도 추천한다.



비슷한 컬러의 소품을 활용하자

막상 포인트 벽지를 시공했더니 집안 분위기와 너무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다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비슷한 색감의 소품이나 가구를 활용해보자.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색상끼리 서로 주고 받게끔 하는 연출 방법이다. 가령 복도에 핑크 컬러의 패턴이 반복된 포인트 벽지를 섰다면 비슷한 계통의 핑크 쿠션이 부착된 의자를 배치하는 식이다. 주방이라면 식탁등의 등갓으로, 침실은 사이드테이블 위에 올리는 적당한 소품 등을 이용해 색감을 맞춰본다.





# 그 겨울, 산이 내게로 왔다

산은 정복하기 위해 오르는 것이 아니다.  
또 영웅이 되어 내려가기 위한 것도 아니다.  
끝까지 오를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한 고통과 두려움을 통해  
내가 사는 세계를 다르게 느끼기 위해서다.  
실제로 산에서 무사히 내려왔을 때의 우리는,  
그 전과 조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다.

산에서 만난 이들에게 “왜 산에 오르는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적당한 답을 찾지 못한다. 어떤 이는 침묵하고, 어떤 이는 대자연을 예찬하며, 고개를 가우뚱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이도 있다. 산을 오르는 저마다의 이유가 다르면 어쩌랴. 누구나 사는 동안 한 번쯤은 산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그렇게 산이 내게로 왔을 때,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느릿느릿 오르면 그뿐이다. 어쩌면 우리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정상에 도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는 행위 자체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의 산은 참 매력적인 존재다.

겨울 산에 올라보았는가? 한 폭의 흑백 수묵화처럼 펼쳐지는 설경의 아름다움과 소복하게 피어난 새하얀 눈꽃들을 바라보느라 한 차례 눈이 멀고 나면 찬 공기를 가르며 산을 오르는 동안 문득문득 생동하는 세포를 느끼게 된다. 경사가 급해질수록 숨이 들고 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얼굴을 때리는 매서운 칼바람에 정신이 어지러워진다. 호흡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 폐가 시려오는 순간, 가만히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바로 그때 묘한 쾌감이 찾아온다. 내 몸 안에서 힘차게 뛰는 뜨거운 심장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다.

하산 길의 매력도 어느 계절보다 남다르다. 눈 덮인 깊고 고요한 산중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것이다. 눈과 얼음을 피해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하며 걷다 보면 함께 걸어가는 이의 발소리가 점점 멀게 들리고 오직 내 숨소리만이 크게 공명하는 온전한 몰입의 순간이 온다. 그 순간만큼 당신은 자유다. 이 겨울 막바지에서, 동면하고 있는 내 몸의 세포를 깨운하게 깨우고 싶다면 겨울 산행을 떠나보자. 일상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활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 ☞

**국립공원관리공단 추천!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 탐방지**

- 1

아이들과 함께 떠나고 싶다면 국보급 문화재와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고즈넉한 사찰 탐방지를 추천한다.  
오대산 월정사, 가야산 해인사, 속리산 법주사, 지리산 화엄사, 변산반도 내소사, 내장산 백양사
- 2

등산 초보자들은 ‘매우 쉬움’ 또는 ‘쉬움’인 3~4시간 내외의 트레킹 탐방로도 설경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설악산 백담사~수렴동대피소 (4.7km, 왕복 3시간 40분), 치악산 구룡탐방지원센터~세림폭포 (3.1km, 왕복 3시간 30분), 덕유산 구천동탐방지원센터~백련사 (5.3km, 왕복3시간), 주왕산 상의탐방지원센터~용추폭포 (2.2km, 왕복 2시간)
- 3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함께라면 케이블카를 이용해 큰 어려움 없이 쉽고 빠르게 고지대에 올라 설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설악산 소공원~권금성, 내장산 탐방안내소~전망대, 덕유산 리조트~설천봉 등
- 4

산 정상에서 탁 트인 설경을 감상하고 싶을 때는 곤돌라나 도로를 이용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봉우리에 올라보자.  
덕유산 향적봉, 소백산 연화봉, 지리산 노고단 등
- 5

등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급경사를 오르내리는 5시간 이상의 장거리 코스로 설경의 묘미를 제대로 맛보기를 권한다.  
지리산 성삼재~만복대~정령치 (7.3km, 4시간), 계룡산 갑사~연천봉~동학사 (10.2km, 6시간), 월출산 천황사~천황봉~도갑사 (9.8km, 6시간) 등

출처: 2국립공원관리공단  
'겨울철 국립공원 설경 탐방지 40선'  
www.knps.or.kr



## safety rules

### 겨울 산행을 떠나기 전 꼭 점검해야 할 안전 수칙

머리부터 발끝까지 든든하게 챙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등산객이 적어서 사고가 비교적 드물게 일어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눈과 추위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겨울 산행을 떠나기 전 꼭 점검해야 할 안전 수칙 4가지를 살펴보자.



**오늘의 날씨?**  
**비상 시에는 누구에게 연락하지?**

출발 전에는 반드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이 많이 올 경우 현지의 상황을 알아볼 것. 또한 조난을 대비해 도움을 요청할 연락처를 확보해두자. 산악 지형에서는 통신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카톡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고, 추운 곳에서 배터리가 급히 방전될 수 있으므로 여분의 배터리도 챙겨두는 것이 좋다.

**까먹지 말자, 으싸으싸 준비운동!**

갑자기 움직이면 몸에 무리가 가기 마련. 준비운동 없이 무리한 이동으로 욕심을 내다가 중간중간 자주 쉬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 질 수 있으니, 출발하기 전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나 오늘 튼튼하니? 자신의 체력 상태를 고려해서 탐방로와 일정을 선택하기**

겨울산행의 가장 큰 적은 추위가 아니라 욕심이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냉정하게 등산로와 등산시간을 정해야 한다. 특히 단체로 산행을 할 경우 개개인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탐방로 등급제 정보를 활용하면 자신에게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소 3명 이상이 함께 산행을 떠나기**

산에서 조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최소 3명!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 3명 이상 모여서 움직이자.



## emergency food

### 에너지 고갈을 막아주는 비상 식량

겨울엔 추운 날씨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산행 중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중간 중간 간식을 먹는 것이 좋다. 비상식량은 무게가 가볍고 바로 열량화할 수 있는 것으로 고르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산행을 마칠 때까지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겨울 산행을 위한 방법 중 하나.



#### 뜨거운 물이 담긴 보온병

페트병에 담긴 물은 산 정상에 도착하면 공공 얼어버려서 마실 수가 없다. 이럴 때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가져가면 따뜻한 물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조난 시에 저체온증에 대비할 수 있으니 꼭 챙겨가자.



#### 소금사탕

소금사탕은 설탕이 주원료인 기존의 사탕에 염분을 가미한 것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칼로리를 보충해주는 귀한 연료가 된다. 소금 성분이 단맛을 녹이기 때문에 초콜릿에 비해 입안이 텁텁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행 시 염분 부족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어지러움 증을 사전에 방지 할 수도 있다.

#### 말린 과일

말린 과일은 등산 중 소모되는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뿐 아니라 추운 기온에 탈이 날 수 있는 몸 속 장기의 소화를 돕는다.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이므로 무게도 가벼워 산행 시 유용한 행동식이다.



## essential items

### 눈꽃 천국을 만드는 산행 필수품

겨울 산행은 낮은 기온과 기상 변화라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겨울 산행은 눈꽃 천국이 될 수도, 혹한 지옥이 될 수도 있다.



- 캠프라인 블랙스툼감마
- 캠프라인 옛지마스터 체인 아이젠
- K2 이너웨어 써모라이트 상의
- 몬츄라 베링 듀벳 재킷
- 몽벨 1000FP 초경량 다운재킷
- 아크테릭스 컨실 후디 3/4 zip
- 고어텍스 익스페디션 퍼 캡
- 후드 워머
- 파워 스트레치 월글러브 (E-Tip)
- 하이벤트 스파츠
- 울 풋 워머

**a**  
**미끄럼 방지가 최우선!**  
**아이젠과 등산화는 꼭 챙기기**

녹지 않고 쌓인 눈이나 얼음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겨울 산! 미끄러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지형에 적합한 접지력과 강한 내구성을 갖춘 등산화를 착용하고, 휴대가 간편한 아이젠을 반드시 지참할 것.

**b**  
**보온을 위해 겹쳐 입기, 레이어링이 정답!**

바람과 강추위가 무섭다고 두꺼운 내복과 무거운 외투를 입고 산에 오르는 건 등산 초보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두꺼운 옷을 입으면 몸을 움직이기 불편해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었을 때 부상을 당할 위험이 더 크다. 보온성이 뛰어난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것이 훨씬 좋은데, 땀에 젖은 옷은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금방 마르는 기능성 소재를 고를 것. 그 위에 체온을 유지해주고 눈과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성 소재 재킷으로 마무리하자.

**c**  
**동상 주의보에 대비하는 방수, 방한 용품**

옷과 신발에만 신경 쓰다가 귀나 손, 발의 동상을 간과하기 쉽다. 특히 오랜 시간 젖은 눈길을 걸어가야 하는 발은 동상에 걸리기 십상이라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연약한 존재. 노출된 부위를 통해 들어오는 바람만 차단해도 체감 온도를 약 5도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목과 머리를 감싸주는 모자나 후드 워머, 월 글로브 등을 꼭 챙길 것. 또한, 바짓단과 발 등을 보호하고 눈에 찌지 않게 도와주는 스파츠 등 방수 용품을 함께 착용하면 더욱 유용하다.





## 어른과 아이, 누구나 먹기 좋은

### 가지 모짜렐라 말이



#### 재료

가지 3개, 토마토소스 1컵(200ml), 모짜렐라(피자치즈) 1컵, 바질 10장,  
올리브오일 반컵, 밀가루 약간, 소금 약간

#### 조리과정

1. 가지는 채칼을 이용해 4~5mm 두께로 길게 슬라이스 한다.
2. 자른 가지를 앞뒤로 밀가루를 묻히고 오일을 두른 팬에 살짝 색이 날 때까지 굽는다.
3. 구운 가지는 키친타월을 이용해 기름을 뺀다
4. 3의 가지 한쪽 면에 토마토소스를 바른 다음 적당량의 모짜렐라와 바질을 올리고 돌돌 만든다. (필요시 소금간을 한다)
5. 가지 위에 남은 토마토소스를 조금씩 올리고 19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5분간 굽는다. (오븐이 없을 때는 전자레인지에서 2~3분간 가열해 치즈를 녹인다)

가지는 저렴하고 흔한 채소이지만 막상 식탁에서는 홀대 받는 느낌이 든다. 익힐수록 물컹해지는 식감 때문에 아이들은 기피하고 일부 어른에게도 취향을 타는 편이다. 서양은 물론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선호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연간 소비량은 100g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가지가 지닌 몸에 좋은 성분들을 생각하면 좀 더 자주 우리네 식탁에 오르내릴 필요가 있다.

보라색 컬러푸드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가지의 주 효능은 뒰니 뒰니 해도 항암작용이다. 특유의 보라색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알칼로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제거하는 역할을 돕는다. 일본 나고야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가지추출액이 8가지 암 종류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한다. 여기에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인, 비타민 A와 C는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수분이 95%를 차지해 몸의 열을 내려주며 노화방지 효과까지 있다. 100℃에서 20분 정도 가열해도 발암물질 억제 성분이 80% 이상 남아 있을 정도로 영양 손실이 많지 않아 다양하게 조리해 먹기에 그만이다.

#### 박인규 셰프

이탈리아 밀라노의 요리 학교와 이탈리아 조리 협회 마스터 코스를 수료 후 국제 조리대회에서는 로마 대표팀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10년 드라마 <파스타>에서 요리 자문을 맡은 바 있으며, <가로수길 레시피>, <셰프 아빠의 아이 식탁>의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는 대학로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핏제리아오에서 총괄 셰프로 활약하고 있다.



## 질리지 않는 사랑 영화

세상에는 무수한 종류의 사랑 영화가 있다.  
백 명의 연인이 있다면 백 개의 사랑이 있듯이,  
사랑 영화 또한 그러하므로. 슬프거나, 기쁘거나,  
감미롭거나, 씁쓸하거나, 간지럽거나, 고통스럽거나……  
사랑 영화에 질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 영화를 본다.

글. 한은형 소설가



### 노팅힐(1999)

원제: Notting Hill 감독: 로저 미첼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여행 서점에 낯선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녀는 세계적인 영화배우. 서점 주인은 휴 그랜트, 영화배우는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잘 어울릴지 몰랐다. ‘로맨틱 코미디의 황제’라 불리는 남자와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만나기는 했지만,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로맨틱 코미디의 강자들이 만났으나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는 것. 이 영화는 진지한 ‘드라마’다! 그리고 매번 허술한 바람둥이 연기 전문인 휴 그랜트가 순정남을 연기한다는 것. 몇 번의 실수와 이별들을 되풀이하다 서로를 운명으로 만드는 기자회견장면은 몇 번을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당분간 이 장면의 쾌감을 대체할 만한 장면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본다.



### 러브 액츄얼리(2003)

원제: Love Actually 감독: 리처드 커티스

리처드 커티스의 이름이 들어간 영화라면 믿어도 좋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브리짓 존스의 일기〉, 〈미스터 빈〉, 〈노팅힐〉의 각본가. 〈러브 액츄얼리〉에서는 기획과 각본과 연출을 겸했다. 최근 개봉한 〈어바웃 타임〉도 그가 각본을 쓰고 연출한 영화다.

〈러브 액츄얼리〉는 2003년 크리스마스에 개봉했는데, 거리에서 이 영화의 OST밖에는 들리지 않았었다. 2003년 버전에는 열 커플의 사랑이 등장하는데, 그때 국내에서 상영하며 삭제됐던 포르노 배우 커플 에피소드를 추가해 최근에 재개봉했다. 휴 그랜트, 콜린 퍼스, 리암 니슨, 키이라 나이틀리, 엠마 톰슨 등의 다채로운 연기가 오감을 물들인다. 누가 봐도 만족할 만한 영화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 작품일 것이다.

### 걸 온 더 브릿지(2000)

원제: La Fille Sur Le Pont 감독: 빠트리스 르콩트

이 시대에 흑백 영화를 본다는 것은 각별한 흥취를 불러일으킨다. 더군다나 그 영화가 칼라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흑백 영화라면. 〈걸 온 더 브릿지〉가 그런 영화다. 일부러 색채를 탈락시킨 이 영화는, 정말이지 강렬하다. 배우의 얼굴 위에서 펼쳐지는 감정과 풍경, 그리고 드라마가. 십 년이 지났음에도, 첫 장면은 잊히지 않는다. 큰 눈에 눈물을 담은 소녀가 세느 강에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이다. 물론,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소녀. 그녀보다 좀 더 인생을 아는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건다. 그 후로는 두려움과 쾌감이 섞인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말로 하고 싶지 않다.

### 참을 수 없는 사랑(2003)

원제: Intolerable Cruelty 감독: 조엘 코언

코언 형제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들 영화의 광팬이 아닌 사람한테는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 코언 형제 영화 중 가장 좋았던 영화가 이 영화였다. 새로운 형식의 로맨틱 코미디였기 때문이다. 으스스한 냉소와 이상한 정서로 버무린 블랙 코미디로 만든 로맨틱 코미디는 본 적이 없었으므로. 배우의 역할도 컸다. 남녀 주인공인 조지 클루니와 캐서린 제타 존스는 그들의 평소 연기를 연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다. 유들유들한 성공한 중년 남자 역할 단골인 조지 클루니와 나이 많은 남자 유혹 전문인 캐서린 제타 존스가 자신들을 극대화한다. 이 노련한 남녀 대표선수들의 기싸움이 맹렬한 영화다. 그들의 승패가 엇치락뒤치락하는 데서 기이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은옥 초대전 —  
더 프레셔스 메세지

The  
Precious  
Message

삼성동 이브갤러리  
12월 31일 - 1월 19일



The Precious Message  
40×47cm Oil on Wood, canvas  
2013



The Precious Message, 100x100cm Oil on canvas, 2012

김은옥 작가는 일관된 ‘보자기’ 연작으로 알려져 있다. 보자기는 한국적이고 여성적인 소재이다. 작가는 극사실적으로 그려낸 보자기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꾸준히 개척하고 있다. 삼성동 이브갤러리에서 지난 12월 31일에서 올해 1월 19일 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회 역시 보자기를 모티브로 한 회화작품들을 선보였다. 보자기는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천이다. 대단히 실용적인 소용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인 싸는 용도뿐 아니라 때로는 음식을 덮는 덮개로, 때로는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깔개로, 때로는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종교적 염원이나 예절을 갖추기 위한 의례용 도구로 쓰이기까지 했다. 생활소품이자 예술품, 주술적 도구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었던 것이다.

작가는 이 같은 보자기를 도구 삼아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혹자는 작가가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보자기를 통해 예술의 진실성을 말한다고 한다. 한국의 전통미와 여성적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는 그 보자기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The Precious Message”라는 작품 명제에서 말하듯 포장된 도구의 특별한 장식성으로 인해 이미 소중한 메시지들이며 특별한 전언일 것으로 읽혀지게 만들고 있다고도 한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보다 안에 담긴 의미에 주목하라는 뜻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 극사실적인 묘사를 선택했다. 극사실주의 작품은 실제 대상을 극도로 치밀하게 묘사해 마치 실물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분야이다. 과거의 인터뷰를 통해 작가는 “예전 작가들은 시대적으로 힘들었기에 자연에서 소재를 찾았고 또 도시의 폐허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면서 “그에 반해 요즘은 소재의 다양성이 확보됐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The Precious Message, 59x67cm Oil on Wood, canvas 2013



# 잠 못 이루는 그대, 쉽게 잠들 수 있기를



GLO To Sleep  
수면유도 안대

안대 내부에 들어 있는 특수 형광물질을 통해 알파파 상태로 유도하여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GLO(형광포인트)라 불리는 이 특수물질은 어둠 속에서 푸른빛을 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심신을 릴렉스시켜 준다. 고가이지만 보다 깊고 빠르게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추천한다.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가 우주에서 잠을 자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안대와 귀마개다. 지구궤도에 올라 본격적인 우주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하루에 16번 밤낮이 바뀌고, 75dB 가량 기계소음이 항상 들리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올 때의 소음이 75dB이다. 비록 우주에서 생활할 일이 없다 해도 안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다. 일반적인 불면증, 낮선 환경에서의 하룻밤,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열대야 등에 시달릴 때 숙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안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적인 유용함에 더해 특별한 기능을 추가한 안대 두 가지를 소개해 본다.



아이겟백 안대

히토류를 주원료로 하는 알틴5TM를 삽입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 알틴5TM는 자연의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담고 있다가 열의 변화를 가하면 외부로 방출한다. 사용법은 뜨거운 물에 데우거나 냉동실에서 차갑게 만든 알틴5TM를 안대에 삽입하여 착용한다. 눈의 피로를 풀어줘 맑고 건강한 눈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자료 협조: 편샵 (www.funshop.co.kr)

# 겨울철 가족 건강지킴이

주부라면, 혹은 당신이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최근 들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황사, 아토피, 방사능, 미세먼지, 라돈 가스, 새집증후군 등등.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온갖 요소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대폭 늘어날 주름살 걱정까지 해야 할 지 모른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가족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대처하자.

## 진공청소기 고르기

중국발 황사만 해도 골치거리였건만 미세먼지는 한술 더 뜨는 강적이다. 일단 제대로 된 진공청소기부터 구비하자. TV, 냉장고 등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성능이 다소 부족해도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뿐 특별히 해를 주진 않는다. 하지만 진공청소기는 다르다. 만듦새가 시원치 않은 진공청소기는 연결 부위나 공기 배출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그대로 새어 나오기 때문이다. 빨아들인 먼지 중에서 가장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만 골라서 뿜어대는 꼴이다. 강력한 HEPA필터를 장착하고 밀폐 시스템을 갖춘 검증된 제품을 고른다. (미세먼지 방출량 4등급 청소기는 1등급 청소기와 비교해 10배 이상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한다)

# vacuum

## 황사눈에 대처하는 법

미세먼지로 인해 웬지 시들한 듯 느껴지지만 황사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특히 겨울철에 내리게 되는 ‘황사눈’을 조심해야 한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이루어진 황사눈은 중금속, 화학물질까지 뒤섞여 산성도(pH)가 식초 수준에 이를 정도로 강하다. 피부가 약하거나 아토피 환자, 두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황사눈을 맞는 시간이 길어지면 점막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노약자나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물론이고 건강한 경우에도 가급적 우산과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황사마스크는 세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스크를 빨아도 여과 기능만 사라질 뿐 미세먼지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두 번 착용은 금물이다.

## 환기가 살길이다

겨울철 가족 건강의 기본은 환기다. 돈도 안 들거니와 특별한 준비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추위 때문에 창문을 열기 싫을수록 더 철저하게 환기를 시켜야 한다. 밀폐된 실내의 공기는 건조하고 탁해진 상태라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기관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최근 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라돈 가스의 경우도 환기를 통해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공기보다 8배가 무거운 라돈 가스를 줄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환기에 대한 시간과 횟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루 3회 10~20분 이상을 권장한다. 태양열이 강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를 추천하기도 한다.

# ventilation

# mask



직장인 꿀잠을 위한  
사대신공 수련하기

바쁜 직장인들에게  
잠은 늘상 모자라기  
마련이다. 업무  
스트레스, 야근, 회식  
등으로 인해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업무의 비효율은  
물론 여러 신체적,  
심리적 병리 증상을  
불러 온다는 것이다.  
성공적이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  
수면시간 관리비법을  
공개해 보겠다.

오수신공

“짧은 낮잠으로 보충하라”



체질에 따라 잘 익힐 수 있는 무공이 다르듯, 개개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도 각양각색이다. 낮 시간에 졸지 않고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정도가 이상적. 만약 수면 부족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면 낮 휴식 시간에 15분 정도 오수(午睡)를 즐겨 보는 것은 어떨까. 밤에 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짧은 낮잠으로 보충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단, 오후 3시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습관신공

“꾸준히 실천하고 습관으로 만들 것”



때로는 가볍게 익힌 생활습관이 본격적인 수련보다 좋은 효과를 낼 때가 있다. 여기에 공개된 비법을 바탕 삼아 꾸준히 실천하고 습관으로 만든다면 어느덧 숙면 달성의 경지에 오를 것이다. 첫째 취침 전 TV, 컴퓨터 피하기. 둘째 취침 전 커피, 홍차 자제하기. 셋째 취침 전 흡연 금지. 넷째 온수로 반신욕과 족욕하기. 다섯째 취침 전 따뜻한 우유나 치즈 먹기. 여섯째 바나나, 아몬드 섭취하기.

기상신공

“매일 매일 수련 모드”



아무리 무공비급이 대단해도 매일매일 수련을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불면증을 탈출하기 위해서도 역시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훈련이 중요하다. 기상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아침 햇볕을 충분히 쬌어서 몸을 깨운다. 더불어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 소화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각성을 돕는 효과가 있다. 주말이라고 지나치게 몰아서 자지 않는 것도 명심할 것.

People | 칭찬합시다

2월호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달콤함이 듬뿍 묻어나는 사내커플이 등장했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 안은 이들이 물씬 뿜어내는 달달한 분위기에 취했었다는 데요. 그러면서도 서로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뭇 진지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쪼록 두 분의 뜨거운 사랑과 애사심이 영원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bedding 2014년 2월호를 보시고  
칭찬합시다 코너와 임직원 체험기 코너에 신청 e-mail을 보내주세요.  
칭찬합시다 코너에 신청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기간 2014년 2월 1일 ~ 2월 15일  
이메일 nrkim1228@evezary.co.kr  
당첨자 발표 2014년 2월 10일 이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독자페이지

Together | 임직원 체험기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수제 초콜릿 배우기를 체험해 보자는 컨셉트는  
진작부터 모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은 적절한  
장소의 섭외. 서울 시내의 수많은 초콜릿 공방마다 섭외 요청을 하던 중  
최근 방송으로 확 떠버린 모 훈남 쇼콜라티에까지 물망에 올랐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르네초콜릿으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3월호에는 더욱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48



이불소재도 결혼처럼  
환상적인 **결합**이 있지 않을까?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 김윤주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 유지형

하루 종일 이불만 생각하는 이브자리 연구원,  
그들의 궁금증에서 최상의 혼수이불이 탄생했습니다



모달+폼팩트면 라안업



모달+폼팩트면 에코빌



텐셀+수피마면 바이오나

이불소재에도 결혼처럼 서로 잘 맞는 결합이 있죠, 실크같이 부드러운 촉감의 모달에 내구성을 높인 폼팩트면, 늘 촉촉하게 수분을 조절해주는 텐셀과 뛰어난 광택의 부드러운 수피마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 기능은 더욱 좋아지고, 새 이불 느낌은 오래오래 유지되는 이브자리만의 혼수이불 신혼부부에게 추천합니다.

수면체질에 맞춘 힐링침구 **이브자리**